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고백하며,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세계성찬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 한 가위를 맞아 즐겁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 길을 오가는 지체들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다음 주는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로 모입니다.
- 멧쟁이학교 5학년이 10월 3일(금)에 유럽공동체탐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가 10월 25일(토)에 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민들레 공동체 수해복구와 예담교회 예들 문화선교사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선교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디아코니아사랑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한호남 집사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0 호

2025년 10월 5일

사랑방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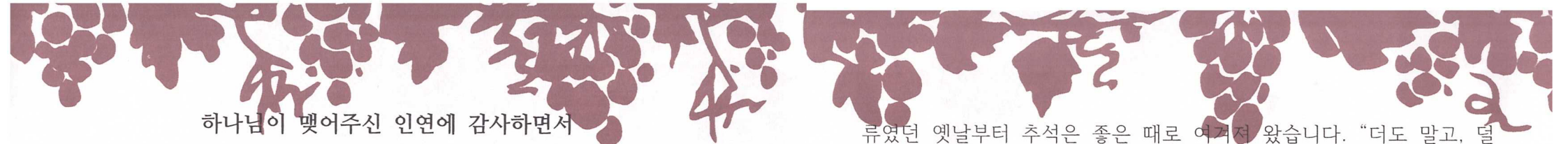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에 감사하면서

얼마 전 멧쟁이학교에서는 추석 연휴를 기념하여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침운동/식사당번 면제권’이라는 나름 커다란 포상이 걸려있었습니다. 몇몇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은 그냥 종이로 만드는 딱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분리수거장으로 뛰어가 종이상자를 몇 개 집어왔습니다. 마치 범피자를 제압하듯이 종이박스를 구겨가며 커다란 딱지를 접은 그들의 얼굴에는 회심의 웃음이 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딱지라는 것을 본 적도 없던 학생들은, 금세 너도나도 그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이 울리도록 딱지치기 소리가 ping ping 터져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얼마 전입니다.

이런 전통놀이는 딱히 추석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놀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전통적인 명절 외엔 기회를 찾기 어렵습니다. 팽이치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땅따먹기, 구슬치기, 비석치기, 연날리기, 윷놀이, 투호 등등 수많은 놀이들이 더 간편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밀려갑니다. 핸드폰 하나면 다른 사람이 없이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불편해질 정도입니다. 타인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자기 취향과 관심사에 맞추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보통 여럿이 함께 즐기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전통놀이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과거의 전통문화가 현대문화 안에서 존재감을 뽐내는 것은 역시 명절과 기념일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추석(秋夕)입니다. 한가위라고도 부릅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8월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큰 명절이라는 것이겠지요. 농경사회가 주

류였던 옛날부터 추석은 좋은 때로 여겨져 왔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농촌에서 더욱 큰 명절로 여겨졌는데, 이때는 오곡이 익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내므로, 이날처럼 잘 먹고 잘 입고 놀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새삼 간절해졌기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이 추석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추석의 핵심은 바로 가족과 친지, 또는 이웃 간의 만남입니다. 추석이 되면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는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먼 타지에 있거나, 기타 사정이 있다면 같은 처지의 이웃끼리라도 마음을 나누곤 합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막히는 차량도로, 전쟁과도 같은 기차/버스/비행기 표 예약, 손님맞이 대청소와 음식과 숙박 준비 등 이 고된 과정을 거치고서 사람들은 만납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스트레스와 높은 비용으로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가정들은 이때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관계가 세상에 별 일이 일어나도 가장 가깝게 신뢰할 수 있는 끈이자 인연, 천륜(天倫),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잘 들어맞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넉넉함을 음식 등으로 나누려 하고, 함께 즐겁게 놀고, 하나로 묶어주는 추억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가족은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뚜렷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다함께 화목한 명절,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뿔나무더러 ‘뿔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

<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31, 420 / 347

기도 : 이어람 집사

성경 : 여호수아 3장

제목 :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도하

1-6 언약궤를 따르라.

해석: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함을 말한다.

적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말씀, 감사, 순종)

7-13 요단강의 기적을 예고하다.

해석: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신다.

적용: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땅의 주권자임을 알고 힘내자.

14-17 요단강을 건너다.

해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

적용: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지난 주일에 세례를 받은 박예찬 입니다. 저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례의 정확한 의미나 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귀찮은 세례교육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례를 준비하며 이러한 생각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내가 놓치거나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했고 또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해야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과 평소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노작 시간이 끝나고 라집사님께서 세례를 받은 저와 친구들에게 “세례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했는데 라집사님께서 “세례를 받았으니 너희도 어른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세례를 받았으니 어른이 되었다는 라집사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의 뜻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 후 집사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생활의 흐름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행동도 더 신중하게 하게 되었고 말이나 사소한 것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세례를 받은 것을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전의 푸른꿈사랑방 박예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김이레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시 편 84 : 1-4

31

영광 영광

로마서 8 : 1-2

588

누가복음 17 : 5-10

557 디아코니아사랑방

“ 믿음의 씨앗 ” 정재훈 목사

540

410(3)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씨앗

믿음의 이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용서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을 양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자신들의 영적 자산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에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자씨 비유.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의 크기나 양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믿음의 본질과 질적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은 그 속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은 이해와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실한 종.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고된 일을 한 후에도 주인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보상을 요구하거나 사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 중심의 신앙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겸손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박영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익어가는 가을,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무림리에 퍼지는 달달한 향기의 주인공인 포도를 따라 학교에서 멀지않은 산 속 포도농원에 갔습니다. 포도 따기 체험을 하고 사다리차를 타고 높이 매달려있는 잘 익은 호두를 따보기도 했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바쁜 중에도 포도농원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환대를 해주셔서 달콤한 포도를 잔뜩 내주시고 언제든지 놀러오라는 정겨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송편 만들기를 했습니다. 맵쌀을 불려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만들고 꾸러기들과 함께 따서 다듬은 솔잎을 씻어두고 쌀가루를 뜨거운 물에 반죽해서 콩, 밤, 깨를 넣고 열심히 송편을 빚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황성자 사모님과 어린이학교 1학년 이든이와 서현이 그리고 이현숙 선생님이 같이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꾸러기학교가 마치 잔치집 같았는데 정성스레 만든 송편의 맛도 일품이라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누고 꾸러기들 집에도 조금 가져갔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지난 주간에 9월은 마무리되고 10월이 시작되었으며 더불어 긴 연휴도 시작되었습니다. 빨간 날이 유난히 많은 10월 안내문을 보며 친구들은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지나면 바로 밀린 일들이 많아서 매우 바빠지겠지요.

10월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이며 추석 연휴가 긴 이 달의 하순에는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 바자회가 있어서 더욱 뜻깊은 말씀입니다. 내가 굳이 움켜지지 않아야 하는 나의 “한 묶음”을 생각하며 시간 여유가 생기는 연휴 말미에 기증물품을 챙기고, 또 주문 상품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린이학교 부모님들은 한 달에 두 번 자원하셔서 ‘책 엄마’, 또는 ‘책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자유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주셨는지를 비롯한 현장 스케치를 학교 밴드에 공유해 주시는데요. 이런 부모님들의 섬김이 참 따뜻하고 귀한 본이 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많은 멋쟁이들이 기다리던 주간이 찾아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아했던 것은 긴 연휴입니다. 추석을 비롯해 대략 10일 간의 가정학습기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화목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공동심화학습 시간에 추석을 맞이하여 특별하게 전통 놀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멋쟁이들이 상품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각양각색의 딱지를 만들고, 제기를 있는 힘껏 찿답니다. 결국에는 최시원, 김재효 멋쟁이가 우승하면서 특별 상품을 따내고, 멋쟁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셨던 5학년이 금요일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얼굴에 부모님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테마여행과 연합선교바자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연휴라 하더라도 준비의 손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되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

지난 주일 공동체 마당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를 쳤습니다. 1시 반에 시작한 작업은 6시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트럭 2대에 나무를 가득 실어 나른게 7번씩은 나른 것 같습니다. 나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끝난 이후에 모두 근육통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다 치고 마당 가운데서 한바퀴를 돌아보니 우리 마당이 참 보기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에도 좋았지만 시야가 아주 시원시원해져서 보기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원래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란 걸 이번에 알았는데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온몸이 쭈시게 힘들다 걸 알게 되니 다음에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나는 사랑방공동체를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일이 하기 싫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은 사랑방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힘들어서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인의 모순인지 아님 이상만 높은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마음은 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 업무 환경 등 많은 외부 영향으로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있어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좋아하는 취미를 해도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해보니 내 마음은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힘들 때나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처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한탄을 많이 합니다. 이런 건 다 내 마음이 외부영향을 받을 때입니다. 이 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차서 외부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차길 바랍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119장, 559장, 452장

성 경 : 잠언 12장 16-18절, 25-26절

말 씬 : 말을 통한 건덕생활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이 뿌리내리고 확대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총회 >

얼마 전 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힘을 모아 하나님나라의 일들을 이루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개천절 및 추석 연휴 가정의 평화와 안전

2) 5학년 금요일 귀국

3) 환절기 지체들의 건강

<생활공동체 소식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가정에서도 명절 준비로 바쁘지만 행복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먼 길을 다녀오는 식구들도 있고, 무림리로 친지들이 오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마당에서 보는 달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가위의 보름달처럼 둥근 마음과 꼭 찬 행복으로 이번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